

#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책동과 군국주의 부활

조희승\*

## 【국문초록】

일본의 역사교과서문제는 두 가지 측면을 내포하고 있으니 하나는 일본역사자체에 대한 왜곡이고 또 하나는 조선역사에 대한 왜곡이다. 1945년 일제 패망 전까지 일본은 국정교과서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천황'국가에 대한 '충효'사상에 기초한 내용으로 일관되어있다. 특히 '임나일본부설'은 역대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것을 역설한 것이다.

'황국사관'이란 '천황'중심의 국가체계를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근대사에 있어서는 국내에 대한 전체주의 지배와 해외침략을 합리화하며 긍정하는 광신적인 반동사상으로 일관된 역사관이다. 그리고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제국주의 식민사관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역사를 매우 심하게 왜곡하고 있다. 고대시기의 '임나일본부설', '임진왜란'의 왜곡, 근대 일제의 조선침략을 정당화, 합리화하는 것 등의 들 수 있다.

특히 현대사부분의 서술은 직접적으로 일본이 전쟁범죄에서 벗어나고 후세대들을 새로운 침략전쟁에로 내몰며 부추기는 내용들로 일관되어 있다. 일본의 '지위와 역할', '대국'으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였으며, 조선을 비롯한 식민지 통치, 강점정책의 산물인 온갖 만행을 은폐하고 있으며 나아가 침략전쟁 그 자체를 미화하고 거기서 싸우는 것을 영웅시하고 있다. 그리고 '기미가요'와 '히노마루'를 대서특필하면서 여기에 어떤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였고, 독도를 일본 측 영해로 기입함으로써 마치 독도가 일본영토인 것처럼 꾸며냈다.

일본은 세계 진보적 인류의 요구와 과거청산의 시대적 추세를 똑바로 알고 무분별한 역사왜곡책동을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임나일본부설, 황국사관, 기미가요, 히노마루, 독도, 군국주의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교수 박사

위대한 령도자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다.

‘일본제국주의는 패망하였으나 그의 침략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성은 그 복수주의적 야망으로 하여 보다 악랄해졌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일본의 력사교과서 개악문제를 둘러싸고 물끓듯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 남조선 그리고 일본 국내는 물론 지난날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일본의 침략피해를 입었던 대다수 아시아 나라들과 유럽나라들이 일본의 력사교과서 문제를 계기로 일본을 맹렬히 지탄하고 있다. 일본은 력사교과서를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해외침략으로 부추기는 ‘교양’수단으로 리용하고 있다. 일본은 력사교과서를 통하여 지나간 력사를 왜곡함으로써 헌법을 개정하고 천황제 파쑈국가를 수립하는데 유리한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려고 있다. 심지어 오늘날에 와서는 력사교과서들에서 독도문제까지 꺼내고 있다.

일본의 력사교과서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일본력사 자체에 대한 왜곡이고 또 하나는 조선력사에 대한 왜곡이다. 현대사 부문에서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일제가 침략한 모든 력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도 포함되어있다.

## 1. 1945년 이전의 일본 력사교과서

1945년 일제 패망 전까지 일본은 국정교과서를 사용하였다. 국정교과서는 1879년에 교육령이 발표된 다음 1903년부터 배포된 교과서를 말한다. 당시의 력사교과서는 ‘천황’국가에 대한 ‘충효’사상에 기초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 즉 1890년 반포의 ‘교육칙어’의 방향에서 ‘천황’숭배, ‘천황’제 파쑈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과 ‘효성’이라는 유교도덕의 반동사상으로 일관된 내

용 서술이었다.

일제가 지난날 자국 일본인민들뿐 아니라 조선인민들에 이르기까지 궁성 요배,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고사기』나 『일본서기』에 실려있는 허황한 신화이야기들인 마마데라스 오오미가미(천조대신), 야마또따께루노 미꼬또, 니니기노 미꼬또, 신무 『천황』이야기에 이어지는 현 ‘천황’을 현세신(수메라 미꼬또 즉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신, 살아있는 ‘천황’을 말한다.)으로 떠받드는 내용과 함께 ‘팔굉일우’의 사상, ‘천황’의 족속인 ‘신공황후’가 조선을 ‘정벌’하였다는 ‘삼한정벌’이야기 등 ‘천황’의 ‘만세일계’를 고찰한 반동적 ‘황국사관’으로 일관된 내용서설은 허방하기 짝이 없는 반동 내용들이었다. 특히 ‘천황’을 우두머리로 하는 ‘야마또조정’이 ‘신공황후’의 ‘삼한정벌’로 조선을 식민지 ‘지배’하였다는 반동적 ‘임나일본부’(미마나 미야게)설은 력대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것을 력설한 것으로 일본사람들에게는 민족적 우월감과 배타주의, 조선 천시사상을 심어 놓았고 조선 사람들에게는 련등민족이라는 민족허무주의를 뿌리깊이 심어 놓았다. 이것이 일제가 강요한 1945년 8.15전까지의 국정 력사교과서의 내용이었다.

8.15패망 이후 일본이 1945년부터 1951년까지 새까맣게 먹칠을 한 력사교과서들을 사용하였다. 다시 말하여 그 전날의 국정교과서 가운데서 일본을 신국이라고 한 개소를 비롯하여 야마또민족, 야마또 다마시와 관계된 부분만을 삭제한 교과서들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일본에서는 1950년대에 들어와서 허황한 신화이야기들을 빼면서 새로이 편찬한 력사교과서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조선관계 서술은 구태의연하였다.

‘임나일본부’설을 비롯한 반동리론들이 그대로 숨쉬고 있을 뿐 아니라 날이 가고 해가 바뀔에 따라 반동적 성격은 군국주의재생, 재무장과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서 더해지고 있다.

## 2. '황국사관'으로 일관된 반동교과서

'황국사관'이란 '천황' 중심의 국가체계를 정당화하려는 일본의 반동적 역사관을 말한다. 말하자면 '만세일계'의 '천황'제 지배를 일본의 '국체'로 하여 대의명분론과 국수주의, 배타주의에 기초하여 구성된 극히 악랄한 반동사관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것은 『고사기』, 『일본서기』의 허황한 서술내용을 통째로 삼킨 채 신화와 역사를 혼동시킬 뿐 아니라 야마토정권의 지배를 미화분식하고 일본역사 전체를 '천황'의 절대화와 천황가의 발생발전을 중심적 사건으로 보는 관점과 립장에 서서 모든 역사적 사실을 평가한다. 그리고 근대사에 있어서는 국내에 대한 전체주의 지배와 해외침략을 합리화하며 긍정하는 광신적인 반동사상으로 일관된 역사관이 바로 일제시기의 반동적 '황국사관'이었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답습한 최근의 역사교과서들 중 그러한 대표적인 것이 '후소샤'(부상사)의 역사교과서이다. 이외의 역사교과서도 대동소이하다.

문부과학성 검정에서 통과된 중학교용 역사교과서에서 '황국사관'이 어떻게 꿈틀거리고 있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신무 '천황'이야기를 옹근 한 페이지에 걸쳐 실었다.

신무 '천황'이라는 것은 『일본서기』에서 말하는 이른바 '만세일계'의 첫1대 '천황'이다. 그것은 신화이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 야마토 정권의 1대 조상이 될 수 없으며 더욱이 년대 그 자체는 더구나 믿을 수 없다. 하지만 새 교과서에서는 2월 11일의 일본의 이른바 '건국기념일'을 설명하면서 『일본서기』에 나오는 신무천황 즉위 날을 태양력으로 고친 것이다.'라고 박아넣음으로써 마치도 그 설화내용이 일본의 건국과 '천황'가의 발생과 관계가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강하게 주게 만들었다.

새 역사교과서들에서는 신무동천 설화를 아무런 비판도 없이 서술하였

다. 기실 그것은 야마또의 '천황'과는 전혀 무관계하며 더구나 일본의 기원절이라고 하는 건국기념일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신무동천(동정)이야기는 가야 이주민집단의 기내지방진출사건을 반영하였을 뿐 일본의 '천황' 또는 건국과는 관계가 없다.

또한 새 교과서에서는 '천황'족속으로서는 '야마또 다께루노 미코또'라는 신화적인 인물에 대하여 옹근 두 페이지에 걸쳐 실었다. 그러면서 '국내통일에 헌신한 용사에 대한 이야기'라는 제목을 달면서 '일본에서 야마또 조정에 의한 국내의 통일이 진척된 4세기 전반경 경행(천황)(제 12대)의 황자인 야마또다께루노 미코또라는 영웅이 있었다는 것을 고전은 전하고 있다.'고 쫓아박았다. 여기서 보는 야마또 다께루가 '고전'에 전하는 실재한 인물인 것처럼 취급된 것도 문제이거니와 '야마또조정'이 4세기에 국내통일을 이룩하였다는 것도 문제가 심각하다.

새 역사교과서에는 일관하게 기내 나라현에 있었던 야마또 정권을 '야마또 조정'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언어표현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지난날 패망 전 시기에 '천황'제 국가를 우상화하던 때에 쓰이던 말이다. 이에 대하여 량심적인 일본학자들도 많은 비판을 가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야마또 조정'이라는 말에는 '황국사관'에 기초한 '만세일계'의 조상계보를 선전하는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신무동천설을 의도적으로 삽입한 것과 건국기념일의 날짜를 쫓아박은 것, 그리고 야마또 다께루의 설화이야기를 '고전'에 기재되어있다고 함으로써 마치도 이것들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묘사한 것은 다 의도적으로 조작해낸 것이다.

문제는 어떠한 '고전'인가 하는데 있다. '야마또조정의 국내통일'을 4세기로 박아 넣은 것은 일본의 조선침략, 해외침략과 밀접한 련관이 있다.

그리고 새 역사교과서에는 옹근 네 페이지에 걸쳐 허황한 망상적인 일본 신화를 소개 선전하였다. 여기에는 그 어떤 비판적 견지도 없고 오직 '천황'

축보를 이상화하고 신화의 내용이 궁극에 가서는 신무 '천황'이 초대 '천황'이 되는 것으로 귀결시켜놓았다.

이밖에도 새 역사교과서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을 '천황'과 관련시켜 서술하였다. <천황>과 무신(사무라이)과의 관계' 등은 그 대표적인 실례들이다. 여기서는 '천황의 권위에 대한 도전' 등 '천황'이 권위 있는 존재로 계속 선전되고 있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역사적으로 '천황'은 권위 있는 신성불가침의 존재였다는 인식을 주게 되어있다.

'천황'을 이상화한 것은 현대사편의 '국민과 함께 걸으신 생애'라는 제목 하에 서술된 소화 '천황'을 취올린 부분의 서술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히로히토를 이상화한 서술로 차고 넘치었다. 히로히토의 생애는 제국주의 일본과 함께 걸어온 피에 얼룩진 역사이며 과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전범자로서의 히로히토의 상판대기를 탄광간데라모자를 쓴 낮판대기로 크게 실음으로써 마치도 그가 인민적 풍모를 지닌 듯한 인상을 주었다.

새 역사교과서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이렇게 '천황'에 대한 환상, 우상을 심어주는 방향에서 내용서술과 구성체계, 직관물 배열이 되어있는 철두철미 '황국사관'으로 일관된 사이비 역사교과서이다.

신무 '천황', 야마또다께루, 스사노오노미코또 등의 신화이야기는 패망전의 파쇼독재가 지배할 때의 국정교과서들에서나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정상사고를 가진 지성인이면 절대로 쓸 수 없는 내용들이다. 그것도 서술은 이 신화들의 배경에 숨어있는 역사적 사실을 도출하기 위하여 인용 소개한 내용서술이 아니라 현존하는 '천황'가의 조상을 이상화하기 위하여 실은 내용들인 것이다.

### 3. 제국주의 식민지사관에 기초한 조선력사에 대한 단편한 왜곡

새 역사교과서에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역사를 흑심하게 왜곡하였다. 크게 40여 개소들에서 그러한 왜곡된 개소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면 역사교과서들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왜곡되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제국주의 식민지사관에 기초한 역사왜곡이었다.

지난날 일제는 관권을 총동원하여 조선민족 말살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일제가 감행한 사상정신적 분야에서의 동화정책의 결과 사람들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못가지고 자기의 성과, 자기 나라 글, 말까지 일제에게 빼앗겨 고통 속에서 헤맸다.

일제는 조선침략과 강점 그리고 식민지통치에 신성한 역사과학을 악용하여 써먹었다. 그들은 조선에 대한 침략을 감행할 때 '임나일본부'의 '복구'를 들고 나오면서 악랄한 '정한론'을 제창하였고 강점을 전후한 시기에는 '동조동근론'을, 통치시기에는 '내선일체'를 고창하며 조선사람들을 괴롭혔다.

일제는 조선사람의 역사에는 자주적 발전이 없이 중국대륙의 영향 하에 좌지우지당하는 쫓대 없는 역사, 자체의 힘으로 자기 민족문화를 창조할 수 없는 오직 중국문화의 파도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온 불행한 역사라고 해왔다. 일본에 준 조선의 문화적 영향마저도 중국문화를 넘겨준데 지나지 않는다고 '반도교량론'을 제창하였다. 일제는 '동조동근'을 고창하면서 고대의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고 본가와 분가와 같은 위치에 일본과 조선이 있었다고 떠벌였다. 그것은 곧 고대시기의 조선은 일본 '야마또조정'의 최고우두머리인 '천황'의 지배를 받는 존재였다는 것, 과거에도 그러하였으니 오늘날에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제시기 국정교과서들에 박아넣은 내용이었다.

계속하여 일제는 조선의 후진성과 낙후성을 주장하는 정체론과 외인론을 부르짖었다. 말하자면 조선이란 력대적으로 뒤떨어진 상태에 있었는데 일본

에 비교하면 수 백 년 혹은 1000년씩이나 낙후했던 나라이며 그러한 력사라고 하였다. 그리고 외부적 자극, 외부적 힘이 가해져서야만 얼마간 발전하는 정도의 낙후한 민족이 바로 조선이라는 것이었다. 요컨대 일제가 관권을 총동원하여 진행한 조선력사는 일본의 부속물로서의 조선과 조선민족, 조선력사였으며 진보와 발전, 자주적 발전과 합법칙적 발전을 무시말살한 조선멸시사상으로 일관된 제국주의 식민지사관의 절정이었다. 최근시기의 일본에서의 새 력사교과서는 바로 이러한 지난날의 제국주의 식민지관의 복사판이며 재현이다.

그러면 새 력사교과서에는 어떻게 우리나라 력사가 왜곡되어 있는가.

그것은 첫째로 고대시기 조선반도의 남부가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반동적 '임나일본부'설을 공공연히 박아놓은 것이다. 지난 시기 일제 어용사가들은 반동적 '임나일본부'설을 근거짓기 위하여 야마또정권의 성립시기를 2~3세기로 사실보다 몇 백 년씩이나 끌어올렸다. 그러면서 광개토왕릉 비문에 나오는 '왜'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기내 야마또정권의 군사력으로 묘사하였다. 교활한 일제군부는 저들이 파견한 군사탐정(간첩)이 가져간 광개토왕릉비문의 탁본을 가져다가 글자를 이리저리 맞추어 조작한 다음 마치도 야마또정권의 군사력이 조선에 건너와서 '고구려와 조선반도의 패권을 둘러싸고 격전을 벌였다.'고 왜곡되게 설명하였다. 이것을 '립증'한답시고 광개토왕릉비문의 사진과 룡비문의 쌍구본 사진, 일본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다이센고분(이른바 인덕 천황릉), 곤다야마고분(이른바 응신 천황릉)등의 사진을 주었다. 물론 여기서 '천황릉'이라는 것은 명치정부가 제멋대로 단 근거 없는 무덤이름들이다. 이와 같은 내용의 서술은 일제패망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오늘날에 와서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표현이 얼마간 바뀌어졌을 뿐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야마또 정권에 조공을 바쳤다는니 '귀하'하였다는니 하는 따위의 서술은 구태의연하다. 심지어 법륜사와 백제관음상도 일본 것으로



로 만들어놓았다.

둘째로, 조선력사를 흑심하게 왜곡하였다는 것은 정채론, 왜인론의 립장에서 중세기의 여러 사건, 사실들을 그릇되게 평가하며 제멋대로 잘못된 결론을 내린데서 나타났다. 새 역사교과서에서는 몽골의 구빌라이가 고려를 속국으로 삼았다고 하였는가 하면 왜구를 일본인뿐 아니라 조선인까지도 많이 포함한 것처럼 묘사하였다. 그리고 왜구격멸과 관계된 15세기 초의 쓰시마정벌 문제, 삼포왜란, '임진왜란' 등도 왜곡하였다. '임진왜란' 서술에서는 이 전쟁이 침략전쟁이라는 측면이 이야기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요도미 히데요시가 영웅시되어 서술된 것 등 실례를 들자면 끝이 없다.

셋째로, 새 역사교과서는 일제의 조선침략을 정당화, 합법화하는 방향에서 사건사실들을 흑심하게 왜곡하였다. 그러나 왜곡은 근대사와 현대사에서 더 우심하다. 실례들로는 운양호사건과 강화도조약 체결문제, 갑신정변과 김옥균 평가, 갑오농민전쟁, 조선강점시기의 여러 사변들이 그것이다. 현대사부문에서는 일제의 조선강점을 미화분식한 사실, 20만 명에 달하는 조선 여성들에게 성노예 생활을 강요한 사실, 반일 의병투쟁과 3.1운동 참가자들을 중세기적 방법으로 야수적으로 탄압한 문제, 조선전쟁에 직접 참전한 구황군의 군사활동 등을 의도적으로 은폐하였다.

주어진 모든 자료들은 새 역사교과서의 집필자들이 고대와 중세, 근대사와 마찬가지로 현대사 부문에서도 조선사 관계내용들을 흑심하게 왜곡말살하고 저들에게 유리하게만 서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 아니라 저들에게 불리한 문제들은 의식적으로 서술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4. 침략전쟁에 대한 미화 분식

고대와 중세, 근세부문도 마찬가지로이지만 현대사 부문의 서술은 직접적으로 일본이 전쟁범죄에서 벗어나고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새로운 침략전쟁에 몰고 다니는 내용들로 일관되어있다.

새 역사교과서에서는 첫째로, 일본의 '자위와 역할', '대국'으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날조하였다. 그것이 과거의 침략전쟁을 '해방전쟁'으로 둔갑시켰다.

고대사부문 서술로부터 '아마또 조정이 아시아의 중심의 하나였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서술로 출발한 교과서는 로일전쟁 관계 서술에서는 '세계의 억압된 민족에게 독립에로의 끝없는 희망을 안겨주었다.'고 과대망상증에 걸린 서술을 하였는가 하면 '로일전쟁에서의 일본의 승리로 하여 중국이나 조선 등 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근대국가를 지향하는 국제주의에 눈떴다.'고 하였으며 '일본은 유미럴강의 줄에 들어서...대국으로서의 의무와 협약 속에 나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썼다. 이를테면 일본은 로일전쟁의 승리로 하여 조선을 국제주의에 깨우치게 하였고 한편 일본은 대국이 되었으며 대국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새 역사교과서에는 만주사변을 비롯하여 '대동아전쟁' 등 침략전쟁을 미화 분식하였다. 일제가 제국주의 파쇼국가로서의 새로운 시장과 식민지를 만들 목적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희생시키기 위해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확대하였고 강점지역에서 치 떨리는 삼광정책을 실시하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전쟁'이라는 미사려구로 침략전쟁을 미화 분식하니 천부당만부당하다.

둘째로, 새 역사교과서에서는 조선을 비롯한 일제의 식민지통치, 강점정책의 산물인 략탈 만행, 살인 만행, 파괴만행 등 온갖 귀축 같은 만행을 온

폐하고 저들의 전쟁범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활하게 책동한 것이다.

새 교과서에서는 조선강점시기의 온갖 야수적 만행뿐 아니라 중일전쟁 때 중국에서 감행한 1천 2백만명 이상에 달하는 학살만행, 남경사건, 수백만 명 이상에 달하는 월남, 만마 등지에서의 학살만행을 완전히 덮어두었을 뿐 아니라 주제넘게도 '전쟁범죄와 집단학살'이라는 장을 따로 설정하여 저들의 전쟁범죄를 회피하였다. 심지어는 일본이 전쟁범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도쿄국제군사재판 자체를 부인하였다. 교과서에서는 재판자체를 의문시하는 등 역사 자체를 왜곡 부인하는 망동을 부렸다.

한편 새 역사교과서에서는 '침략전쟁이란'이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일본이 침략전쟁을 감행하지 않았던 것처럼 교활하게 후대들을 가르치는 한편 뻔뻔스럽게도 적반하장 격으로 '인도에 대한 죄'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과거의 일본군성노예와 같은 특대형 인륜죄 같은 것은 당반우에 올려놓고 저들이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살려주었다고 대서특필하였다. 그리고는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새로운 침략전쟁으로 부추기고 내몰기 위하여 지난 침략전쟁을 '정의의 전쟁', '일본의 부모형제와 고향을 지키기 위하여'한 듯이 묘사하기에 급급하였다. 실례로 일제가 청소년들에게 강요한 특공대를 서술하면서 '특공은 작전적으로는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이었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고향과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이 일본을 지키기 위하여 희생되는 것을 감히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서술은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이렇듯 현 일본당국은 침략전쟁 그 자체를 미화하고 거기서 싸우는 것을 영웅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을 나아가서 일본자체를 침략전쟁으로 부추기도록 교과서내용을 새롭게 재구성, 재집필, 재판집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 5. 역사교과서 왜곡과 군국주의 부활

역사교과서 문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히노마루’와 ‘기미가요’, 그리고 ‘독도문제’를 박아 넣은 것이다.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는 ‘기미가요’와 ‘히노마루’를 대서특필하면서 여기에 그 어떤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였고 ‘공민’이라는 사회교과서에서는 독도를 일본측 령해로 기입함으로써 마치 독도가 일본 령토인 것처럼 꾸며냈다.

‘기미가요’의 제창과 ‘히노마루’의 게양은 정치적 문제로서 사실 현행헌법과 어긋난다. ‘기미가요’는 봉건군주에 대한 충성으로 일관된 내용이며 ‘히노마루’역시 일제침략의 피 묻은 흔적이 력력한 물건이다. 오래 동안 그 어떤 령법기관에서도 통과한 적이 없는 ‘히노마루’와 ‘기미가요’가 1999년 8월 9일 일본국회 참의원에서 국기, 국가로 인정하는 법안이 승인되고 그에 앞서 7월 22일에 중의원에서 그것이 통과되었다.

‘기미가요’는 ‘천황’제를 복구하고 해외침략으로 즐달음칠 수 있게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천황’ 숭배심을 북돋아주는 것이다. 1946년 11월 3일에 공포된 현행헌법은 주권이 ‘천황’에게 있지 않고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밝히고 ‘천황’은 상징적 존재이며 국회가 주권의 최고기관으로 된다는 것을 명시하였고 ‘천황’은 국정 즉 국가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기하였다. 특히 제9조에서는 전쟁을 포기하여 전력보유금지를 명문화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현행헌법대로 하면 일본 ‘천황’은 어디까지나 상징적 존재이기 때문에 ‘〈천황〉의 세상이여, 영원하라’는 뜻이 담긴 ‘기미가요’는 공식국가로 될 수 없으며 현행헌법과 대치되는 것이다. 또한 ‘히노마루’도 헌법 실행시 그 사용이 점령군사령부의 지시에 의하여 금지된 상태에서 헌법에 명기될 수 없었다.

일본헌법(이른바 평화헌법)은 반포직후부터 보수반동진영들로부터 부단히 뜯어고칠 것을 요구하는 이른바 개헌책동이 감행되었다. 헌법개정의 기본요구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제9조에 명기된 전력보유를 포기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재군비를 확인한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천황'의 지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일본에서 그전처럼 '천황'제 파쇼국가를 확립하고 해외침략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기미가요'를 국가로 제정하는 것은 그것이 곧 그대로 헌법개정을 위한 서막으로 된다. 일본국회참의원에는 이미 헌법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제정되었다. 그들은 국회에서 헌법개정을 위한 반동적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마음대로 조선을 비롯한 해외침략에 공공연히 나서려 하고 있다. 여기에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국기, 국가로 제정하는 위험성과 그 본질이 있다.

역사교과서에 '기미가요'와 '히노마루'를 마치 역사적인 정통성이 있듯이 박아 넣은 것은 공식적인 교육수단을 공간으로 조직적으로 그것을 합법화하고 내려먹이려는데 중요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 실로 '기미가요'와 '히노마루'의 국가, 국기의 제정, '야스구니진자'참배, 역사교과서 왜곡, 헌법개정 등은 유기적인 련관을 가지고 군국주의 부활에로 일본을 떠밀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전쟁과 침략을 반대하고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세계 진보적 인류의 요구와 과거청산의 시대적 추세를 똑바로 알고 무분별한 역사왜곡 책동을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 Japan's Distortion and Militarism in History Textbook

Cho, Hui-Sûng

It has been an issue that Korean history was perverted in many textbooks in Japan, which caused the distortion of Japanese history. Until 1945, Japan Empire compiled the school books stressing absolute loyalty toward the state and Denno(Japanese Emperor). From this kind of perspectives, the history textbook came to authorize the Japanese *colonization over other countries*. The problem is that these approaches still have an impact upon the contemporary history. Historical writings issued in modern period are likely to encourage Japan's impingement and violence by overstating Japan's role, obligation and Greatness. It also supports the colonization and regarded Tokto (the island belonged to Korean territory) as in Japanese domain.

### Key Word

Japan, History school books, Distortion, Kimigayo, Hinomaru, Tokto, Militarism